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314 | OCTOBER 2023



1799年 出生
1839年 5月 20日 殉教

丁國보
프로타시오
聖人

2023.04.18 칠도복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3년 10월호 / 통권 314호

발행일 2023년 10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김명중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3©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14 | OCTOBER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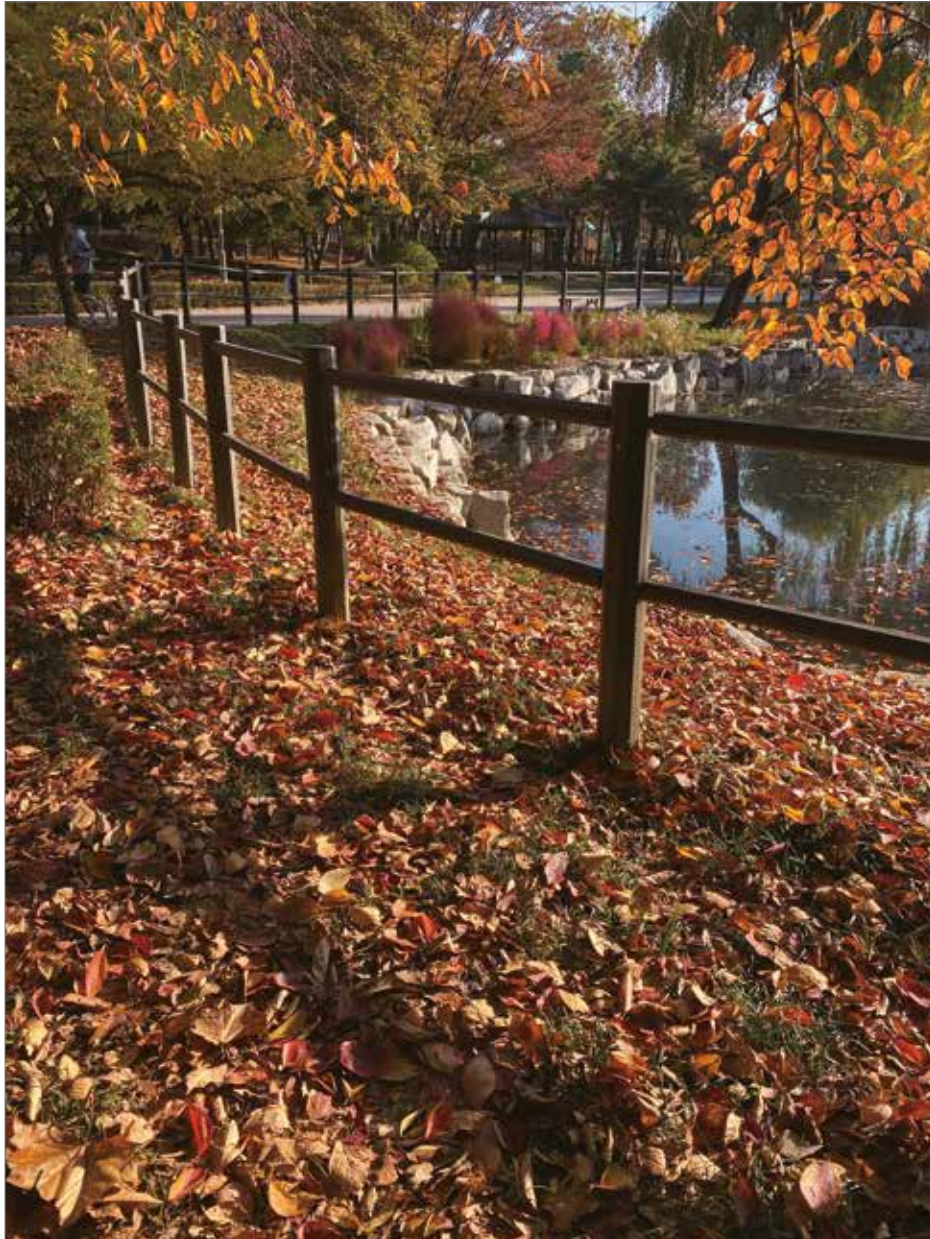
렌즈로 보는 세상	4
편집장의 글	5
함께 읽는 성경	6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하실래요?
교회의 가르침	10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14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20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26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30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신앙과 삶	32 성모님께 바치는 묵주기도
듣다 읽다 보다	36 고전 음악을 듣다 42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4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2 정원이야기 56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알리는 글	62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THE COVER

성 정국보 프로타시오

그린이: 정도운 엘리야(<http://artist-jdw.com>)



찬미 예수님!
 10월입니다. 올여름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
 고온현상으로 폭염과 폭우가 한반도를 휩쓸
 고 지나간 것이 언제냐는 듯, 맑고 시원한 하
 늘과 아침저녁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를 가을
 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가을 하늘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은 감
 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원보본(追遠報
 本)과 보본반시(報本反始)”라는 말이 있습
 니다. 조상의 덕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뿌리
 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을은 조
 상을 넘어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계절이
 기도 합니다.

인간의 몰락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데
 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잊지 말라’, ‘기억하
 라’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분주
 하게 사는 동안 사람은 늘 하느님과 맺은 약
 속을 잊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망각한 채,
 욕망의 별판에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종교의식입니다. 반복되는 의식을 통해 사람
 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곤 합니다.

김현승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
 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명
 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공평함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
 었던 까닭을 시인은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냅
 니다. “감사하는 마음 — 그것은 곧 아는 마음
 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主人)
 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감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 때, 우
 리 속에 저절로 스며드는 마음입니다.

이런 감사의 계절, 「가톨릭직장인」 구독자
 여러분과 ‘가톨릭 직장인 교우회’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소식을 전합
 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지난 8월의 서울
 대교구 정기 인사에서 본당으로 발령이 났습
 니다. 직장사목팀을 떠나 본당으로 왔습니다.
 급하게 떠나느라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 했습
 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인 우리이므
 로 또다시 만날 거라 믿으며 떠나 왔습니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직
 장인 교우회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혹시 부족
 한 저로 인해 상처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길 청합니다. 그동안 감
 사했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현, 수락산 주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하실래요?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창세기 공부(21장-24장)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계약, 즉 약속입니다. 신약과 구약성경에서 약속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만 보더라도 계약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약속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의 사상이 신·구약 성경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약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계약에 대한 자유로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사악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었는데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르 사이에서 아들을 얻고, 결국 이 가정의 관계는 파탄과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근심하지 말아라,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여러 번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 때 절대로 걱정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시험의 기간입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시험은 어렵게 얻은 이사악을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많은 갈등을 느꼈지만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느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체험이 확고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받았던 많은 시련과 시험의 기간을 통해 단련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굳건한 신앙이 생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훼 이레’는 창세기를 관통하는 주제로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라는 뜻입니다.(22,14)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마련해주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마련하려고 애쓰지만 이미 하느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고통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까지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 돌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된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느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늙고 나이가 많아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늙은 종을 보냅니다. 길을 떠난 종은 자신의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샘물에 물을 길으러 나온 레베카에게 달려가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 주오”하고 청합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지역에서 물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들과의 싸움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생겨난 것도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바로 이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늙은 종이 자신이 물을 먹고는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레베카의 인내심과 자애, 성정을 살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

창세기 21장에서 25장까지 읽고 문제에 답해주세요.

-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사악을 낳았나요? (21,5)
-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나요? (21,10)
-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네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 주어라. ()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21,12)
-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어떤 계약을 맺었나요? (21,22~24)
-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22,2)
- 하느님께서 이사악 대신 번제물로 준비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22,13)
- 하느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나요? (22,17~18)
-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땅을 청하였나요? (23,3~4)
-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사악의 아내를 선택할 때 어떤 부족은 안 된다고 했나요? (24,3)
-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한 레베카는 또 어떤 일을 했나요? (24,17-20)
- 라반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 받으신 분이시여, 들어오십시오.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 놓았고 낙타들을 돌 곳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꼴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와 동행자들에게 () 물을 주었다. (24,31~32)

다음 성서 구절을 직접 써보세요.

- 창세기 21장 5~7절
- 창세기 22장 12~14절
- 창세기 24장 13~15절

생활을 반성해보고 영적일기를 써보세요.

- “야훼 이레”를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성사적 삶,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

왕태연 요셉 신부_ 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성사(聖事)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된 신자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과 인간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고 있고,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1요한 4,16~17)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첫 세 개의 계명은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충실하고 성실한 사랑의 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어서 자칫 사랑의 자유가 배제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93항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라는 요청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보다 하느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첫 세 개의 계명이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충실하고 성실한 사랑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네 번째 계명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계명들의 내용은 ‘이웃’ 곧, 나와 함께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9항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함께”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지켜내며 이웃들과 화목하게 어울려 지내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것과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나의 것을 양보하는 것 사이에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중심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입니다. 사랑은 타인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사랑은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또 사랑만이 우리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매우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 기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러모음”의 역사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역경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구원에 대한 의지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으로 교회의 신비를 세상에 더욱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풍요로운 성사(聖事)들을 비롯하여 세상의 여러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 해석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 애쓰면서 구원의 신비를 알리고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자들 곧,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교회는 침묵해야 하며, 오직 자기 종교의 교리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 183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가 정치의 핵심 임무이지만,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의 건설에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 받는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약자가 외면당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범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정의롭고 평화롭게 지켜야 할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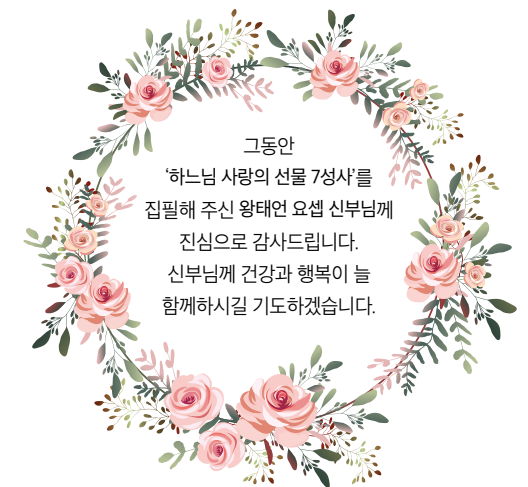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사랑을 나누

기 위한 고민과 노력들을 멈춰버리면, 결국 스스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 사랑받을 기회도 사랑을 나눌 기회도 구원을 얻을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정공동체 안에서, 사회·정치공동체 안에서, 국가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 주며,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을 때, “나”와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며,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사의 은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사의 은총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사의 은총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사의 은총을 세상에 증거 하며 살아가는 성사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성사의 은총이 우리를 이끄는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



「가톨릭 직장인」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⑩

연대(連帶, solidarity), 그리스도인 사회생활의 원리
-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에의 헌신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교회의 사회교리 체계는, 교회가 역사의 경로에서 드러난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 전체에 비추어서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해석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새로워진다.”(「간추린 사회교리」, 104항)

‘사고(事故)’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을, ‘사건(事件)’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구별됩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들이나 SNS를 통해 접하는 많은 정보에서 ‘사고’와 ‘사건’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인 경우 사회구조적 원인이 있으며, 그 영향이 크고 지속적일 수 있어,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도 개별적 차원과 함께 제도나 구조의 개선 같은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어, 지난 호에서 소개한, 시민의 관심과 책임 있는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세 생활을 열심히 추구하는”(「기쁨과 희망」, 4항) 가운데, ‘상호의존의 세계화’ 경로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의 한 편에서는 그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면서도 다른 한 편에서는 심각한 불균형과 불평등의 슬픔과 고뇌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심각한 불균형과 불평등’은 ‘사회적 문제’로서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의도하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이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심각한 ‘일자리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

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사고일까요? 사건일까요? 만일 그 문제는 온전히 한 개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고’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그 문제는 완전히 사회구조적으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의 태도는 이른바 ‘자유주의’ 이념에서, 뒤의 태도는 이른바 ‘사회주의’ 이념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이상적인 모습은 그 두 이념의 적합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개인들’의 성실한 노력과 사회구조적인 실질적 해결책 마련과 그 적용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지와 도구’(「인류의 빛」, 1항 참조)로서 ‘지금 여기에’ 실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동요하는 인류에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기쁨과 희망」, 제1부 제4장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임무 참조). 이때 교회는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과 권리, 일치에 향한 개인들과 모든 나라 시민들의 공동 노선, 곧 연대의 길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 체계’는 그렇게 이 연대의 원리로 다시 새로워집니다.

우선 우리는 ‘연대의 공동체’와 ‘패(牌,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의 무리)’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패’는 ‘특정 이해관계’로 모여 “그 집단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이들만”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그 집단의 구조를 위협할지도 모를 낯선 존재는 모두 차단·배제하려는” 폐쇄 집단이기 때문입니다(「모든 형제」, 102항).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관계 맺음이라 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사회)의 삶에서, 그 관계 맺음이 ‘패싸움’의 성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이성보다는 ‘힘(폭력)’이 지배하는 난투(亂鬪)의 장(場)이 되고 말 것입니다(「모든 형제」, 16, 36항 참조; 「찬미 받으

소서」, 82항 참조).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역사와 현실이 증언하는 바는 아주 명료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과 약한 분야와 약한 사회부터 쓰러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이득을 향한 강렬한 욕망’과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드러난다는 그 구조들을 두고 ‘죄의 구조들’이라 분명하게 고발하며 (『간추린 사회교리』, 119항 참조), 그것들이 시급히 ‘연대의 구조’로 정화되고 전환되어야 함을 호소합니다(193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대’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모든 일이 분해(分解, 해체)되고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에, 공동의 미래를 구축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무름’에 책임이 있다는 그 의식에서 생겨난 ‘단단함’에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는 구체적인 복무(service, 수고)로 드러납니다. 그 수고는 다른 이들을 돌보려는 노력에 있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수고는 대부분 취약함을 돌본다는 것, 우리 가족, 사회, 시민 가운데 취약한 성원들을 돌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수고를 바치면서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구체적인 시선 앞에서, 자신들만의 바람과 염원과 권력 추구를 제쳐 놓는 법을 익힙니다. 수고는 언제나 취약한 성원들의 얼굴을 지켜보고, 그들의 삶을 만지고, 그들과의 밀착을 느끼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밀착을 견디면서까지 그들을 도우려 합니다. 수고는 절대로 이념적이지 않습니다”(『모든 형제』, 115항).

연대(連帶, solidarity) – 참된 평화와 성장의 길(『간추린 사회교리』, 203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죄의 구조들을 강화하는 다른 요소, 곧 교회 내부(ad intra)와 교회 밖(ad extra)의 요소를 성찰하는데, 그 공통점은 위선 또는 무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칙은 제2장 ‘길 위의 나그네(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람들(하느님 경배에 봉헌된 종교인들)”에 관한 교회 내부의 성찰에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경배”는 “형제자매들을 향한 우리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는 그 신앙”의 구체적 삶으로 드러나야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길”임을 가르칩니다(74항 참조). 이는 우리 신앙인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하느님을 경배한다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그 위선이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회칙은, 교회 밖으로는, ‘비밀 동맹’의 위선을 다음과 같이 성찰합니다. “사회를 조작하고 기만하는 자들 사이에는, 또 거리를 두고 떨어져 공정하게 비평한다고 공언하면서도 그 사회체제와 그 체제의 혜택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 사이에는 특정한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 언뜻 보기에 근절할 수 없을 그런 악들이 모든 일에 대한 잔인한 비판을, 불신과 혼돈을 낳는 의심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일을 동반한다면, 그것은 정말 통탄할 위선이 될 것입니다.”

‘이득을 향한 강렬한 욕망’(경제)과 ‘권력을 향한 욕망’(정치)에 더하여, 회칙은 일부 종교인들과 지식인들(문화)의 그 위선이 ‘죄의 구조’를 강화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런 위선은 환멸과 절망만 키울 뿐, 연대와 관용의 정신(=연대의 구조)은 조금도 촉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나면 완벽하게 사악한 회로(=죄의 구조)가 완결됩니다”(75항).

그러면서 회칙은 “실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127항)를 구축하려면, 참되고 온전한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려면, 선의(善意)의 가치들이 특히 구체적인 복무(service)로 드러나는 그 ‘연대’의 가치가 사회에 전수되어야 하며(113, 115항 참조),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 의미를 밝힙니다.

“연대는 관대함의 산발적 행동들에 관련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는 공동체의 관점에서(공동체에 관하여)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는 모든 이의 삶이 소수에 의한 재화의 할당에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는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상대로, 노동과 땅과 주택 부족의 구조적 원인을 상대로, 사회적 권리들과 노동의 권리들에 대한 불인정을 상대로 항쟁하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연대는 돈의 제국이 휘두른 파괴적 영향들에 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대는, 가장 심오한 그 의미로 이해할 때,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중 운동들(popular movements)은 바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116항). 🗣️



la Orana Maria (1891, Paul Gauguin, oil on Canvas)

Ave Maria

성모송(聖母謠, 라틴어: Ave Maria 아베마리아)은 그리스도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기리며 마리아에게 전구(傳求, 대신 빌어줌)를 간청하는 것이다. 이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안녕하십니까, 마리아님’ 또는 ‘축하합니다, 마리아님’이라는 뜻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성모 마리아를 찾아가서 건넨 인사말이다.

다른 말로는 성모경(聖母經)이라고도 하며, 성모송은 전례 행위가 아닌 성모 마리아를 성인으로 공경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성모송 또는 성모기도를 통해 성모 마리아를 성인으로 공경하는 그리스도교 교파로는 로마 가톨릭교회, 정교회, 성공회 등이 있다.

그 기도 내용은 루카 복음서에서 차용한 것으로 첫째 부분은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1,28)로서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축하 인사를 한 일과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루카 1,42)로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올린 일이며,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후렴구는 15세기경 프란체스코회에서 삽입한 것이라고 전해지는데 성모 마리아에게 전구(傳求, 대신 빌어줌)를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모송은 6세기부터 전해져 오다가 11세기 이래로 수도원에서 봉송되었고 13세기부터 평신도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1568년에는 교황 비오 5세가 성모송을 성무일도에 삽입하여 대중들에게 더욱 널리 전파시켰다. 또한, 이 기도를 내용으로 한 교회 음악이나 기도문을 가사로 한 음악 작품 등이 많이 제작되었다.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여주 양반 출신 최창주(崔昌周, 마르첼리노, 1749-1801),
이중배(李中培, 마르티노, 1751?-1801),
원경도(元景道, 요한, 1774-1801) 순교복자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최창주는 여주의 양반 출신으로 조선에 신앙공동체가 시작될 무렵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습니다. 1791년에 다른 천주교인들과 광주(廣州)에서 체포되어 풀려난 것을 보면 천주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천주교 신자임을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 일을 후회하면서 지내오다가, 1800년경 똑같은 기회가 찾아올 때, 아내에게는 “당신은 나 없이도 그런대로 잘살 것이오.” 하며 자신의 미래를 암시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신하는 척하면서 “수도 서울로 갑니다” 하고 말하였지만, 다시 돌아와서 여주의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관가에 가서 심문을 받으면, 늘 똑같은 심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천주교의 공범자가 누구인지를 추궁받는 것이었습니다. “관장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 제5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는 아무것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인을 고발하게 되면, 고발당한 이도 심문을 받고 사형을 당할 것이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5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하였던 것입니다.

마르첼리노는 한 달에 두 차례씩 고문을 받았고, 감사는 한마디 말만 해도 즉시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첼리노는 한결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크신 아버지이자 대왕(大王)을 섬기기 시작한 다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를 부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오, 저는 결국 제



목숨을 그분께 바치게 될 것이오.”

최창주의 대답은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한결같이 믿고 있던 천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즉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부모에게 생명을 주신 큰 아버지(大父)요, 세상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큰 임금(大君)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인 여주로 보내어져서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같은 여주 출신인 이중배 마르티노는 과격함과 확고부동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의학에 뛰어났던 그는 천주교를 알게 된 후에, 과격한 그의 성격을 고치고 확고함과 올바른 성격만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중배 마르티노에 대해서 당대에 함께 지켜보았던 황사영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이중배 마르티노는 소론의 일명(사대부 첩의 자손을 一名이라 합니다)이었고, 경기도 여주에서 살았는데, 용맹이 남달리 뛰어나고 의지와 기개가 아주 쾌활하였습니다. 전부터 김건순과 생사를 같이할 만큼 가깝게 사귀어 왔는데, 그가 성교를 믿어 받들자 마르티노도 그를 따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열

심함이 불같이 뜨거웠고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대담하게 행동하여 남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신년(1800) 부활 대축일에 개를 잡고 술을 빚어 한 마을 교우들과 길가에 모여 앉아 큰 소리로 희락경(부활삼중)을 외우고, 바가지와 술통을 두드려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나서는 다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날이 저물도록 계속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이중배는 양반가의 서얼(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의술에 관심이 있어서 의학을 배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실천하고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기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담함과 용기가 드러납니다.

<황사영 백서>의 내용을 좀 더 들어봅시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그



는 원수인 집안의 밀고로 열한 명의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어 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교우 중에는 마음이 약한 이도 있었지만, 그들도 마르티노의 격려와 권면에 힘입어 혹독한 형벌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도 모두 한결같이 굳게 버티어, 끝내 석방되지 못하고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티노는 본래 의술을 알고 있었으나 그다지 깊이 알지는 못하였는데, 옥에 갇힌 후 병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 침을 놓고 약을 처방하였는데, 낫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명성이 크게 퍼져서 멀고 가까운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옥문 밖은 늘 장날 같았습니다. 본관(本官=수령)도 이것을 금할 도리가 없었고, 자기도 병이 나면 와서 약 처방을 얻어 갔습니다. 이 때문에 옥 안에서도 일용 물품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 하루는 옥리(獄吏)가 의서(醫書)를 좀 보고자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내게는 의술을 적은 책은 없고, 다만 천주를 공경할 뿐이요, 당신도 의술을 배우려거든 주님을 믿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 마르티노는 옥중에서도 늘 책을 베끼고 경문을 외우며 진리를 설명하여 사람들을 권유하였는데, 옥졸 한 사람이 감화되어 교를 믿었으며 열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중배 마르티노는 이처럼 옥중에서도 그의 의술로 사람을 치유하고 도왔으며, 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면서 신앙을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술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는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소망을 청할 줄 알았던 망덕(望德)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티노에게 큰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혈육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으로 찾아와 “그래, 너는 백발의 네 아버를 남겨두고 죽기를 원하느냐?”하고 물었습니다. 마르티노는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참된 효도의 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직 인륜만 생각한다면 아버님 앞에서의 제 행동은 그리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좀 높이

본다면, 자연의 정을 위해서 만물의 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대왕이시며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분을 부인한다는 것이 옳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버지, 큰 아버지, 임금의 임금, 큰 임금에 대한 신앙의 증언입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여주로 압송되어 3월 13일 최창주, 원경도와 함께 참수로 순교하였습니다.

원경도 요한 역시 여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797년 23세에 사촌 이종배 마르티노와 함께 김건순 요사팻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습니다. 원 요한은 온 가족을 입교시키고, 최창주 마르첼리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1800년 부활 대축일에 잔치를 벌이며 부활삼종기도와 성가를 부르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여주 관장은 다른 신자들을 밀고하라고 했으나, 원 요한은 “다른 사람을 밀고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붙잡혀 온 장인 최창주와 이종배, 이들은 6개월 이상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함께 형벌을 받으며 서로를 위로하였습니다. 1800년 10월경, 원 요한과 동료들은 경기 감영으로 이송되어 다시 형벌을 받았습니다. 신유박해(1801)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감사는 최후 진술을 받고 사형을 선고한 뒤, 고향인 여주로 돌려보내어 사형으로 백성들을 경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1801년 4월 25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여주 출신의 양반들은 함께 체포되어 같은 날 고향 여주에서 참수로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경기 감사가 조정에 보고한 최창주 마르첼리노에 대한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창주는(천주라는 큰 부모가 있다 하여) 제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흉악합니다. 또 모진 형벌을 당하면서도 교회 서적이 있는 곳을 대지 않

았고, 끝내(천주교 신앙을 믿는) 마음을 고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인륜과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달가운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일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진술 안에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은 정부의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곧 당시 조선 정부는 천주(天主)라는 이름의 “큰 임금, 큰 아버지”라는 생각이 없었고, 세상의 창조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음양오행의 운행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기운과 순리에 따라 움직이며, 그 질서와 인륜의 도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천주교 신앙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권력과 힘인 기운(氣運)의 작용일까요, 아니면 그 생명의 기운과 자연의 순리를 움직이고 주재하는 천주(天主)의 창조력과 생명력과 기운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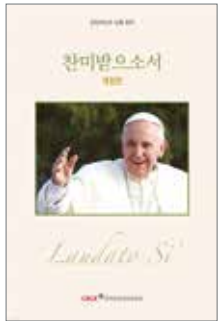
묵상

여주의 남부럽지 않은 양반들이 왜 조선 정부에서 금지하는 천주교 신앙을 공공연히 드러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천주교 신앙을 온전히 증거하게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이나 주일에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돌봄의 문화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몇 년 전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잿더미로 변한 숲속에서 다친 코알라에게 물을 먹여주는 소방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알라의 앞발을 잡고 물을 먹이는 소방관의 모습이 참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지켜주고 보살펴줄 때 사람은 아름답게 빛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가족인지 아닌지, 나와 같은 생물종인지 아닌지를 넘어 사랑과 돌봄을 펼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면, 오늘날 생태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지구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보살핌’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로 응답하느냐가 응답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이야기하는 ‘돌봄’이라는 주제에 저는 눈

길이 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프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보살핌을 지구 공동체 전체로 확대해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공동의 집 지구에 함께 사는 존재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루자는 뜻이겠지요.

따뜻한 관심

회칙이 강조하는 돌봄의 문화는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리고 애뜻한 관심”(19항)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카 복음이 전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유다인을 자처하던 사제와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멀찍이 지나쳐 가버리는데, 멀리받던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이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의 고통을 떠맡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눈을 돌려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일 때, 지구 공동체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더 깊이 바라볼 때, 공동의 집을 위한 돌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버림의 문화’가 만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에는 돌봄을 좋아하고 잘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돌봄에 대한 깊은 동경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창조 세계를 사람의 손에 맡기시며 “일구고 돌보게”(창세 2,15) 하셨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분께서 우리 인간을 ‘돌봄의 협력자’로 부르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점에서 인간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보살핌을 반영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돌봄의 몸짓

돌봄의 문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꼭 무슨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돌봄은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 돌봄은 결국 마음의 표현이고, 그래서 “무관심의 세계화”(52항)를 넘어 “서로를 돌보는 작은 몸짓”(231항)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돌봄의 문화는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어린 마음으로 돌보는 자리에서 싹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의 문화는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 환경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고 있고, ‘쓰고 버리는 문화’에 맞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즐거운 불편’이나 ‘자발적 소박함’을 실천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는 것을 방지하려고 조류충돌방지 안전 필름을 개발해서 붙이는 캠페인이 늘어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이 도로나 댐 등의 건설로 인해 서식지가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이 지나는 길(생태 통로)을 만들어주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태적 실천들이 민들레 흩날처럼 퍼져나가고 “돌봄의 문화가 온 세상에 스며들도록”(231항) 노력한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꽃필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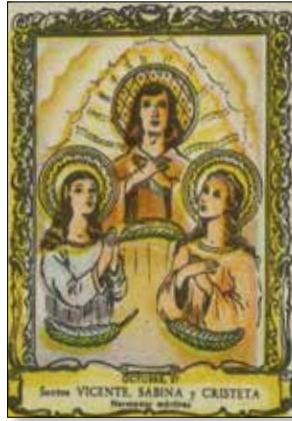
생태적 희망

오늘날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돌봄의 문화를 가꾸어 가는 이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

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 가지 못합니다”(244항). 이 초대를 따라 우리가 시대의 어두운 면에 움추러들기보다는 가장 먼저 희망을 갈망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희망을 위한 실천에 땀 흘리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누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며 스스로 일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에게 역사의 암흑기는 반대로 창조적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시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도와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에 찬 활동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의식의 변화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생태적 희망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희망 안에서 생태적 회심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때, 지구라는 공동의 집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그 미래는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네,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까?”(205항).

돌봄의 문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며 <가톨릭 직장인>과 함께 했던 2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황혼 녘의 바닷가, 어떤 노인이 파도에 휩쓸려 해변으로 올라온 불가사리들을 한 마리씩 주워 바다로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의아해하자 노인은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지금 썰물이 시작되어서 그대로 두면 모래밭 위의 이 불가사리들은 다 말라 죽게 된단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이 넓은 해변에 이렇게나 많은 불가사리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러자 노인은 허리를 굽혀 또 다른 불가사리를 주워들고는 말했습니다. “최소한 이 한 마리만큼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녀 사비나

St. Sabina (축일: 10월 28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작은형제회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힘의 논리를 대변하는 셈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과 권력과 명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순교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기에, 어떻게 찰나에서 영원으로 건너가는 경험을 하였기에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영원한 비밀에 해당되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순교자, 성녀 사비나(St. Sabin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이름과 간략히 전해져 내려오는 삶에서 그 해답을 조금이나마 얻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녀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비나라는 말은 라틴어로 사비누스(Sabinus)의 여성형으로, 이는 또 다시 영어로 그 뜻을 찾아보면 ‘a Sabine(사비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

비나는 결국 어원적으로 ‘사비나인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비나 민족이 누군지를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비나 민족은 고대 중부 이탈리아 아펜니노 산맥 인근에 살았던 고유한 민족으로, 후에 로마 공화국으로 흡수되어서 라틴화가 진행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 흡수 합병된 작은 민족적 문화권을 두고 사비나(Sabini)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인구 부양을 위해서 이런 사비나 여성들을 많이 납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비나 사람들과 로마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비나 여인들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아이들과 남편들을 구해내고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였다.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나 여성의 납치는 예술혼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전통적인 소재가 되었고,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정결을 위한 순교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사비나 민족은 후에 로마 공화정에 흡수 합병이 이뤄졌고,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비

나 민족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렬하던 시대에, 사비나 성녀와 친남매인 성 빈첸시오는 에스파냐 중서부에 살던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공화정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비나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으로 인하여 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고백하며, 모든 배교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사형이 예정되었지만 자신의 자매인 성녀 사비나와 성녀 크리스테타(St. Christeta)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세 남매는 지금의 스페인 아빌라(Avila)에서 참혹한 고문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1175년 아빌라에 그들의 유해가 돌아왔고, 그 위에 대성당을 지어 현재까지도 현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빌라의 성 빈첸시오 대성당(Basilica of San Vicente)입니다.

사비나 여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여인으로서 헌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순교는 자신의 영혼육신의 순결을 위한 정결의 성덕이 더욱더 완성되기 위해 기쁘게 치려야 하는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것을 지불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효용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생존 논리를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의 섭리의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원한 생명의 섭리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다시 타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 요한 12,25 ☩

성모님께 바치는 묵주기도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50대 중반인 사무엘은 10월 묵주기도 성월이 되면 그동안 어려운 순간마다 성모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은총의 경험들을 헤아려본다.

대학에 낙방한 후 재수 시절, 새벽에 정독 도서관을 가면서 묵주기도를 드렸던 시간들, 대학 입학 후에는 암울했던 80년대 학창 시절과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묵주알을 돌리며 힘든 시기를 극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취업 후 미국 지사장님이 출장을 오셔서, 손가락에 끼어있는 묵주반지를 알아보신 후 반갑게 ‘한 형제네!’ 하면서, 현재까지 30여 년 세월 동안 귀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아내인 마리아와 처음 만났을 때 묵주반지를 선물했고, 약속 장소에 올 때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마리아는 묵주반지를 하니 자연스럽게 묵주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 기도의 은총이 있었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나 보다.

몇 년 전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혹시나 큰 병이 아니기를 바라며, 성모님께 치유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청했고, 여러 검사를 거친 후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서 가



벼운 마음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지금도 출퇴근길에 가족뿐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자주 불렀던 성가를 음미해본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여 묵주의 기도 드릴 때에 나를 위로 하시며 빛을 밝혀 주시는 모든 걱정 사라지고 희망 솟아오르네 항상 도와주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Question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은총을 받았던 체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콜로새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께 감사드린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마리아께서는 완벽한 기도자, 교회의 표상이시다. 우리가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 아들을 보내신 성부의 계획에 마리아와 함께 동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그랬듯이, 우리도 살아 있는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신 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어, 마리아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 마리아께 기도할 수도 있다. 마리아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를 떠받쳐 주는 것이며, 교회의 기도는 희망 안에서 마리아의 기도와 일치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79항]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한 천사 앞에서 마리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강생을 위해 나자렛의 보잘것없는 처녀인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몹시 놀라웠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권세와 부를 누리는 이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 놓았고, 자신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선택하신 하느님께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하느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놀라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뜻을 꺾으실 수도 있으며 우리의 계획을 위기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들을 받아들여라. 너 자신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우리 모두 자신 자신에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거나 요구하실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봅시다.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매일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구원의 힘이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시다.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 2013년 10월 13일, 강론에서]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직장사목팀 창립 30주년 기념 AESTUS 성가단 제8회 정기연주회

2023.12.15 Fri. 08:00 PM
명동성당 대성전에서

8TH AESTUS CHOIR CONCERT

내 노래가 그 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네.
(시편 10-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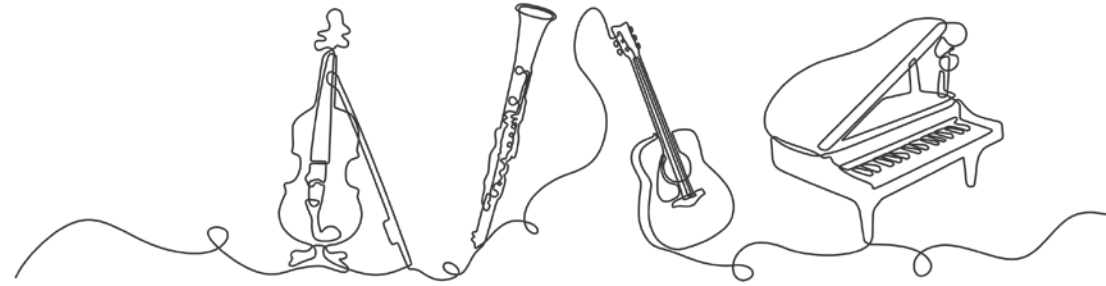
주관/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직장사목팀



고전 음악을 듣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죽음과 변용

조병선 바오로_청주대 법학과 교수



곡명 ‘죽음과 변용(變容) Op. 24’의 낯선 단어 ‘변용(Verklärung)’은, 영어로 번역될 때 흔히 ‘Transfiguration’으로 ‘trans’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접두어’가 되겠고, ‘figure’는 ‘우리의 모습이나 용모’를 말하는데, 동사를 명사화한 것이므로, ‘용모가 변하여진 것’을 말하고, 우리말 ‘변용’의 의미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원래 독일어 ‘Verklärung’은 ‘verklären(밝게하다, 명확하게 하다)’의 명사형이지만, 신약성서 마태오복음 17장에서 유래한 단어로 봐야한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랐을 때, “... 모습이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마태 17,1-3).”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다(마태 17,5-6).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 ‘변용(Verklärung)’ 앞에 ‘죽음(Tod)’을 추가하여

‘죽음과 변용’이라는 제목의 교향시를 1889년(25세)에 작곡하였다. 마치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라는 제목의 가곡과 현악 4중주와도 유사한 제목이다. ‘죽음과 변용’과 ‘죽음과 소녀’의 공통점은 시(詩)가 개입된 점이지만, 슈베르트가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시에 곡을 붙인 반면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먼저 곡을 작곡하고 친구였던 시인 알렉산더 리터에게 곡의 내용을 시로 표현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출판하는 총보 앞에 시를 게재하였다. 순서가 거꾸로운 셈이다. 시인 리터는 슈트라우스가 ‘높은 이상을 추구하던 한 예술가의 죽음’을 그리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기에 음악적 내용을 시로 표현할 수 있었다. ‘죽음과 변용’의 음악은 4부로 나뉘어, 1부는 ‘죽음을 앞둔 아픈 사람’, 2부는 ‘죽음과 삶 사이의 전투’, 3부는 ‘죽기 직전 과거의 회상’, 그리고 드디어 4부는 ‘변용된 후 보게 될 장면’이다. 20대의 청년이 그러년, 마치 임사 체험자와 같이 리얼한 음악적 묘사는 그를 독일 후기낭만주의의 대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슈베르트가 죽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녀’와의 대조를 통해 죽음의 공포와 비극성을 노래하였다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죽음 앞에 공포에 떨던 환자가 끝내 변용하는 사후의 세계까지 그려 마치 ‘죽음을 통한 해방’이라는 낭만시대적 정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 음악의 마지막 4부의 ‘변용-주제’를 60여 년이 지난 자신의 마지막 작품 ‘4개의 마지막 노래’의 아이헨도르프의 시에 붙인 마지막 4번째 가곡 ‘저녁 놀이(Im Abendrot)’의 마지막 귀절 ‘어쩌면 이런 것이 죽음일까?(Ist dies etwa der Tod?)’가 불러진 뒤 나오는 오케스트라의 멜로디에 그대로 다시 등장한다. 이렇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죽음과 변용’은 청년기부터 인생의 황혼까지 어우르고 있다.

청년기의 슈트라우스는 말러만큼이나 바그너를 좋아하였고, 자신 스스로 ‘바그너의 적장자’라고 자부하였다. 슈트라우스는 14세 때인 1878년에 처음으로 바그너의 ‘지그프

리트’를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고, 본격적인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후, 공공연히 바그너의 예술적 적자임을 주장하였다. 일련의 표제적인 교향시들을 통해 작곡가로서 큰 성공을 거둔 그는, 1885년에는 한스 폰 뷔로의 후임으로 마이닝엔의 궁정악장직에, 1898년에는 베를린 궁정가극장의 궁정악장직에까지 오르게 되어 지휘자로서도 정점에 달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의 마지막 10년에 이르러 되면서부터 교향시라는 양식에 대해 일말의 식상감도 느끼고, 좀더 종합적인 바그너의 악극(Musikdrama)에 천착하였다. 1892년에 자신이 직접 대본까지 쓴 영웅적 악극 ‘군트람(Guntram)’(Op.25)을 위한 궁정극장에서 초연하였고, 1901년에 초연된 두 번째 오페라 ‘화재의 재난(Feuersnot)’(Op.50)에서는 바그너 선율을 노골적으로 차용하며 바그너풍에 머물렀지만, 드디어 1905년에 이르러 초연된 ‘살로메(Salome)’(Op.54)에서는 드디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하였다. 그 이전 1899년 극작가 휴고 폰 호프만스탈(1874-



Strauss Alliance
Boston Symphony Orchestra, Gewandhausorchester Leipzig, Andris Nelsons

Release Date: 6th May 2022
Recording Date: November, 2017-December, 2017
Catalogue No: 4862040
Label: Deutsche Grammophon
Length: 8 hours 31 minutes



Richard Strauss: Guntram
Release Date: 4th Jul 1994
Catalogue No: G0100012011052
Label: Arte Nova
Length: 1 hour 40 min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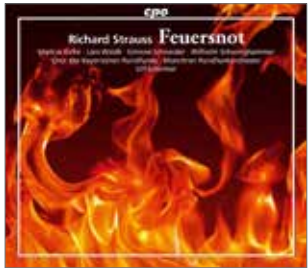
1929)은 슈트라우스의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이 극본을 쓴 발레작품에 음악을 작곡해 줄 것을 제의했으나, 슈트라우스는 정중히 거절하였었다(당시 슈트라우스는 호프만스탈에 대해 별달리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905년 ‘살로메’의 초연을 전후하여 두 사람의 교분에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된다. 슈트라우스가 막스 라인하르트(Max Reinhardt)가 1903년부터 연출한, 베를린의 클라이네스테아터(소극장<Kleines Theater>)의 ‘호프만스탈의 연극 엘렉트라(Elektra)’를 관람하면서부터였다. 원래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살로메’의 원전 ‘오스카 와일드의 연극 살로메’에서 열연하였던 배우 게르트루트 아이졸트(Gertrud Eysoldt)를 보려고 관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슈트라우스는 연극배우보다도 작가 호프만스탈의 예술적 재능에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는 살로메의 초연을 끝낸 후 바로 호프만스탈에게 엘렉트라 의 오페라화를 제안하였고, 이에 호프만스탈

은 연극대본보다 더욱 생략된 강렬한 오페라 대본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하고 획기적인 대본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세기적 콤비의 시작으로 1929년 호프만스탈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슈트라우스는 1906년 6월부터 작곡을 시작하였으나, 슈트라우스의 잦은 연주여행으로 다소 느리게 진행되다가 궁정악장직의 1년 안식년을 갖게 되면서 1908년 비로소 완성하였다. 사실 그 1년 전인 1907년경 거의 완성된 단계였으나, 호프만스탈은 당시 보수적인 빈 청중들의 취향으로 미루어 빈에서의 초연(슈트라우스의 제안)을 반대하였고, 그 반대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슈트라우스는 과거 자신이 활약했던 드레스덴의 작센 궁정극장에서 1909년 1월 25일에 초연을 하였다.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오페라들을 나흘에 걸쳐 공연하는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하나로 초연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1월 25일 엘렉트라(Op.58) 초연, 26일 살로메, 27일 화재, 28일 엘렉트라 재연이었다. 에른

스트 폰 슈흐(Ernst von Schuch)의 지휘의 초연은 당대 최고의 가수의 진용을 갖추었다. 엘렉트라 역은 ‘화재의 재난’의 초연에도 등장하였던 소프라노 아니 크룰(Annie Krull) (리리코 스피토로서 당초 이졸데 수준의 강력한 드라마티코를 원했던 슈트라우스의 기대에는 맞지 않았으나 뛰어난 표현력으로 흡족한 결과를 얻어냄), 크리소테미스 역은 소프라노 마르가레테 짐스(Margarethe Siems) (그녀는 이후 ‘장미의 기사(Der Rosenkavalier)’(Op.59, 1910) 초연에서 마르살린 역을,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Ariadne auf Naxos)’(Op.60-1, 1910)에서 체르비네타 역을 맡음), 클뤼템네스트라 역에는 메조소프라노 에르네스티네 슈만-하잉크(Ernestine Schumann-Heinck), 오레스트 역은 후에 장미의 기사 초연에서 옥스 남작 역을 맡게 되기도 하는 바리톤 칼 페론(Karl Perron)이 맡았다. 마치 감전된(Electrified) 듯 하다고 표현된 초연 당시에는 예상대로 찬반 양론이

심했으나, 이후 각 가극장들에서 점차 주요 레퍼토리로 정착이 되어갔다. 엘렉트라를 계기로 슈트라우스는 바그너의 악극양식의 결정판을 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그너의 영향을 자기만의 독특한 색채로 원숙하게 소화해내었다고 평가받게 되었다. 훗날 스트라빈스키는 “파르지팔 이후의 오페라는 ‘엘렉트라’와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이 두 작품 뿐이다”라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였듯, 아직도 엘렉트라는 현존하는 최고의 현대오페라로 남아있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독일의 후기낭만주의를 대표한 최고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나치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명예는 추락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으며, 스위스로 망명하였다. 슈트라우스는 지금까지 승리에 넘친 빛나는 삶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회생할 수 있는 희망은 고사하고 노년의 길목에서 만난 질병과 자기를 향한 세상의 질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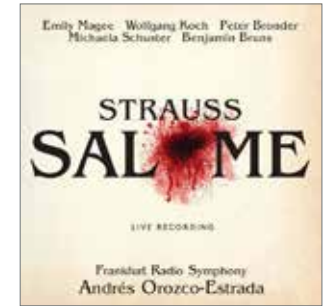


Strauss, R: Feuersnot

Release Date: 2nd Mar 2015
 Catalogue No: 777920-2
 Label: CPO
 Length: 88 minutes

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80여년 생애를 살아온 술회가 담긴 생애 마지막을 장식한 노래들로서,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인 1948년(84세) 망명지 스위스에서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의 시 ‘봄(Frühling)’, ‘9월(September)’, ‘잠자리에 들 때(Beim Schlafengehen)’, 아이헨도르프(Joseph Freiherr von Eichendorff, 1788-1857)의 시 ‘저녁놀이(Im Abendrot)’를 텍스트로 하여 ‘4개의 마지막 노래’(Op.posth)를 작곡하였다. 이 시들은 모두 죽음과 연관된 감회를 담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상념이 있다. 그런데 슈트라우스와 나치의 관련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면, 1933년 11월, 슈트라우스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요제프 괴벨스는 그를 제국음악원장으로 지목한다. 슈트라우스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치에 협력할 의도는 없었다. 다만 당시 가택연금상태에 있던 유대인 며느리 엘리스를

구하기 위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이 위치에 있는 동안 그는 1936년 올림픽을 위해 올림픽 송가를 작곡하고 지휘했으며, 또한 몇몇 고위 나치당원과 친분을 맺었다. 1935년, 슈트라우스는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 광고 전단에서 유대인 대본작가이자 그의 친구였던 스테판 츠바이그(Stefan Zweig)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나치의 지시를 거부한 후에 제국음악원장의 지위에서 물러나도록 강요 받았다. 이때 슈트라우스는 츠바이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 자네는 모차르트가 작곡할 때 자신이 아리안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냐? 나는 단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알 뿐이네.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재능이 없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네.” 이 편지는 게슈타포가 가로챘고, 게슈타포는 이를 히틀러에게 보냈고, 결국 슈트라우스는 제국음악원장을 사임했다. 망명까지 해야했던 현실이 이토록 힘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쓰라는 아들 프란츠의 간곡한



Strauss, R: Salome

Release Date: 17th Nov 2017
 Catalogue No: PTC5186602
 Label: Pentatone
 Length: 1 hour 52 minutes

설득에 슈트라우스는 다시 펜을 들어 그때까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장르였던 가곡을 쓰기로 결심하고 1946년부터 스케치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1948년 5월 6일에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여성을 위한 ‘저녁놀이’가 완성됐다. 이어서 ‘봄’, ‘잠자리에 들 때’, ‘9월’을 완성했다. 그러나 ‘4개의 마지막 노래’라는 이름으로 4곡이 지금의 순서로 발표된 것은 슈트라우스가 죽은 후 출판업자였던 친구 에른스트 로트에 의해서다. 그래서 작품번호 없이 사후작품(Op.posth)로 정리된다. 곡의 초연은 슈트라우스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후인 1950년 5월 22일, 런던 로얄 앨버트 홀에서 열렸으며 이날 연주는 소프라노 키르스텐 플라그슈타트(Kirsten Flagstad)와 빌헬름 푸르트벵글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연주되었다. 이 작품은 슈트라우스의 죽음에 대한 준비이자 아름다움에 대한 고별이다. 오케스트라 반주에서는 젊은 날에 보여주었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충격적인 효과를 모두 배재하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요소들만을 선택했다. 그 결과 오케스트라의 진지한 감성과 멜로디 라인의 간결함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흡인력을 갖게 되었다. ‘저녁놀이’의 가사 마지막 귀절 ‘어쩌면 이런 것이 죽음일까?(Ist dies etwa der Tod?)’이 불러진 뒤 나오는 오케스트라의 멜로디에 얽힌 젊은날의 ‘죽음과 변용’의 변용주제는 그 질문에 대한 슈트라우스 자신의 답변이리라. 이듬해 1949년 9월 8일 슈트라우스는 - 어쩌면 신성한 변용을 기다리며 - 조용히 눈을 감았다. 3일 후인 1949년 9월 11일에 열린 슈트라우스의 장례식에서는 자신의 최고의 히트작 ‘장미의 기사’ 제3막의 삼중창이 연주되었다. 🎵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

정현영 요셉 신부_사목국 상설교회



야곱이 아버지 이사악에게 가까이 가자, 이사악이 그를 만져 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예사우의 손이로구나.”(창세 27,22)

흔히 ‘나는 누구인가?’하고 질문할 때, 또는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누군가 물어올 때, 나에게 대해서 설명하려면 최소한 이름, 나이, 직업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 그런 간단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00초등학교 00학년 00반 000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고통을 겪고 있는 ‘나’를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살아왔던 세계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상실에 대한 영화는 많이 있습니다. 사고나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려는 것은 한 인간의 삶에 전혀 다른 서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정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개봉한 <럭키>(이계벽)라는 영화는 킬러였던 한 사람이 기억을 잃고 신분이 바뀌면서 영화배우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2년에 개봉한 <열쇠 도둑의 방법>(우치다 겐지)이라는 일본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이며, 2021년에는 <엔드게임: 나는 킬러다>(요효지)라는 중국영화로 다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며 공포스러운 기억상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매’입니다. 노년의 삶이 길어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그 안에는 위태로운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린 자신을 부정하는 언어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Still Alice>(2014), 더 이상 돌보기 힘든 치매에 걸린 배우자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The Leisure Seeker>(2017), <로망>(2019)과 같은 영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억상실을 젊은 이들의 애절한 사랑과 연관시킨 영화들도 있습니다. <오늘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2022), <일주일간 친구>(2017), <비가 그친 후>(2019), <첫 키스만 50번째>(2004, 2017)와 같은 영화들은 선행성기억상실증에 걸린 연인을 위해서 기억창고가 되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실되어 가는 기억을 시를 통해서 대체하는 특별한 영화도 있습니다. <Marjorie Prime>(2017)에 등장하는 가족들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았던 시절을 홀로그램으로 구현하고 기본적인 정보들은 미리 갖고 있지만 세세한 개인사와 연관된 것들은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완해 나갑니다. 결국은 모든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시들만이 남아서 서로가 들었던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런 영화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조금은



더 파더 (The Father), 2021
드라마 | 영국, 프랑스 | 97분



다른 영화가 <The Father>(Florian Zeller, 2020)입니다. 치매에 걸린 앤소니는 딸 앤과 함께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앤은 남자친구와 함께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앤은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셨고, 때때로 그를 찾아옵니다.

영화의 시작은 평범합니다. 앤은 아버지를 찾아왔고 간병인을 대하는 아버지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느냐는 딸의 질문에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의 시계를 훔친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앤은 그가 어디에 시계를 두는지 잘 알고 있었고, 시계를 찾은 앤소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그리고 이제 앤은 남자친구 제임스와 함께 파리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앤소니는 창밖으로 돌아가는 앤을 바라본 후에 앤이 걸어 놓은 커튼이 다시 반쯤 쳐진 어두컴컴한 방 침대에 앉습니다. 영화는 시작하면서 10분 정도의 시간에 해야 할 이야기를 다 쏟아놓은 듯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앤소니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혼동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딸인 앤부터 알아보는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앤

은 요양원의 간호사인 카트린과 섞이고, 카트린은 로라라는 간병인과 섞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인 빌이 앤의 전남편인 폴과 섞이기도 하고, 폴은 앤이 파리로 함께 간 남자친구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 또 섞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섞이면서 앤소니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그가 머물고 있는 집이 어딘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매번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은 딸의 집이기도 했고 오래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루시의 병실이기도 했으며, 양로원의 방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는 풍경은 같았지만 침실문을 열고나서면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면 항상 시계를 찾았는데, 그 시계는 늘 정해진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시계를 찾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가 눈을 뜬 시간은, 자신은 분명히 아침이라고 생각했지만, 늘 파자마를 입고 있는 그는 아침 8시인지, 저녁 8시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의 시간에서 느끼는 혼란은 다른 시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5년 전 헤어진 딸의 남편과 대화하고, 벌써 몇 달 전에 파리로 떠난 딸을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은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는 요양원 간호사인 카트린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뭔가?”, “나는 정확하게 누구인가?” 그러면서 자신의 멋진 이름(앤소니)을 지어준 어머니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워합니다. 그는 내 이파리가 다 떨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카트린은 혼란에 빠진 그를 안아주며 옷을 입고 산책을 가자고 말합니다. 날씨가 화창할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이런 맑은 날은 길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이 살아가던 시대에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악이 뒤늦게 찾아온 에사우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서도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사우의 “아버지,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창세 27,38)하는 호소가 더욱 안타깝게 들립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일찍이 야곱이 에사우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창세 25,26)이나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의 맏아들 권리를 팔아버린 사건(창세

25,33)에서 예견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악은 야곱의 거짓말을 눈치 채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창세 27,1)는 것은 단순히 빛을 잃었다는 것뿐 아니라, 정신의 명료함도 흐려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한계 안에 묶어 두지 않고 하느님의 자유로우심과 연결 짓습니다. 훗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사우를 만날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에사우는 야곱이 보낸 선물조차 마다합니다. “내 아우야, 나에게도 많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창세 33,9) 이는 분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에사우에게도 많은 복을 허락하셔서 야곱에게 가지고 있던 복수의 마음조차 필요치 않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히 마주하기 싫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앤소니가 질문했던 것처럼 스스로 답할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이사악의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두 사람 모두를 축복하심으로써 그 축복이 특권이 아니라 은총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되돌아킬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 굳이 돌아가지 않고서도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깊숙한 숲 안으로 - 광야의 세레자 요한 수도원

심연선 소화테레사,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숲이 있는, 나무가 많은 성지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유다 산지의 한 고을, **에인 케렘**입니다. 이전에 이곳에 맛집이 많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다교 음식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는 식당들이 있어서 피를 많이 빼지 않은 소고기로 구운 스테이크나 칼라마리, 새우 등이 들어간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에인 케렘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물론 이곳을 찾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날나리(?)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주로 오는 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에인 케렘은 헤르츨 산이 있고 소렉 골짜기가 시작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골짜기 중턱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변두리 마을인데요, 이곳에 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에서 에인 케렘 까지 오는 버스를 타는 방법과 트램을 타고 와서 헤르츨 국립묘지 앞에서 하차하여 걸어 내려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립묘지가 있는 헤르츨 산 주변에 있는 마을은 Beit Hakerem, Bayit Vagan 등 유다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부터 마을 전체가 유령도시가 되는데,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짜기 안에는 주말을 즐기러온 유대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대조적인 풍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묘한 독특함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제 초콜릿 가게입니다. **세레자 요한 탄생 기념성당**으로 가는 골목길 초반의 왼쪽에 위치한 작은 가게인데, 저는 이곳 초콜릿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상시간이 넉넉할 때면 혼자 걸어 내려와서 순례자 분들도 맛보고 저도 맛보며 행복을 나누려고 사서 가져가곤 했습니다. 밀크 초콜릿이 참

맛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반대쪽 길 건너편으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 근처에 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여성 수장으로 유명한 분의 이름과 동일한 상호명입니다. 이곳 아이스크림, 참 맛있습니다. 사실 체인점입니다. 지중해의 야포에서도 구도시 항구 쪽에 있습니다. 야포에서 공항가기 전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순례자분들께 아이스크림 꼭 사드시라고 권하고 저도 같이 사먹는데, 에인 케렘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여행 하실 때나 여유가 있으시면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피스타치오나 다른 견과류가 들어간 맛이 인기가 좋고, 상큼한 과일 맛도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에인 케렘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은 성모님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비롯하여 세레자 요한, 엘리사벳, 즈카르야가 살았던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푸르른 나뭇잎을 자랑하는 숲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삶





↑ 성당 이콘



↑ 엘리사벳 무덤 외부



↑ 엘리사벳 무덤 내부

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디저트가
게가 있어 그 기쁨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
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있었던 헤로데 대
왕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동방박사들
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세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학살되었고 세례자 요한도 그 위
험에 노출이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은 엘리사벳 성녀의 품에 안겨 천사의
도움으로 도망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모 방문성당에 가보시면 1층 경당 오른쪽
에 둥그란 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례자 요한이 안전하게 숨겨질 수 있게 도와
준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은 이곳 에인 케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
에 위치한 곳에서 모셔온 돌인데, 이 성지의
이름은 세례자 요한 광야 수도원입니다. 이곳
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지는 에인 케렘에서 약 6km 정도 떨어
진 곳에 있는 에벤 사피르 (Even Sapir)라는
모샤브(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키부츠에서 파

생된 농촌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도보로는
한시간 좀 넘게 걸리고, 이곳까지 연결해주
는 버스를 타면 40여분, 자동차를 가지고 오
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이스크림 사먹을 수 있는 자유시간도 어려
운 예루살렘 근교 여정하기에 단체로 순례할
때 이곳까지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개인
적으로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기
인 겨울과 봄 무렵에 찾아오면 골짜기를 가
득 메우는 아름다운 물안개를 만나실 수 있
고, 그 골짜기마다 심어진 하얀 아몬드 꽃나
무가 만들어내는 눈부신 감격을 만나실 수
도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광야 수도원이라고 해서 광야라
는 단어가 주는 삭막함을 예상하고 왔다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마주하고 조금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מדבר 라고 합
니다. 유다 광야처럼 나무 한그루도 볼 수 없
는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곳도 미드바르라고
합니다만, 이곳도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없
는 곳', '외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
하러 가신 곳이 바로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 가야하며 광야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



↑ 수도원전경



↑ 수도원 십자가



↑ 연못과 은수동굴

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드바르의 뜻이 ‘말씀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입니다. 벼랑에 위치하고 있어 들어가는 입구가 제일 위층이고, 내려가면서 아래층을 만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입구에 있는 나무 십자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탈리아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지 중에 라 베르나를 참 좋아하는데, 그곳에 있는 나무 십자가처럼 크지는 않지만 유다 산지 골짜기를 배경으로 조금 휘어진 나무의 모습 그대로 세워진 십자가가 마음에 스며듭니다. 가장 위쪽에 위치한 작은 성당을 들어

가 보면 성인의 이콘들로 가득한 벽이 보입니다. 성당이 크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세례자 요한의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묵상시간을 갖습니다.

성당을 나와서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고여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보기에 고여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물이 연중무휴로 나오는 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방금 본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모여진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근처에 탈의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교회 신자들이 탈의하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아까 본 동굴

의 샘에서 세례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샘과 연못 사이로 절벽에 작은 동굴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그곳이 아기 세례자 요한이 숨겨져 헤로데 대왕의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승에 따라 내려져 오는 동굴입니다. 몸을 굽혀 안으로 들어가면 왠지 느껴지는 따뜻함이 엘리사벳 성녀의 품 같습니다. 계단을 따라 다시 올라가면 수도원 성당을 위쪽으로 엘리사벳 성녀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 올라가보면 작은 건물이 보이고 이스라엘 성지에서 본 문중에 가장 작은 문을 따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몸짓으로 들어가면 엘리

사벳 성녀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에 스위스에 본원을 둔 개신교 여자 신도들이 가톨릭 수도원 전통을 받아들여 만든 그랜드 캠프 수녀회가 머물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정취가 잘 배어있는 광야의 수도원은 처음엔 푸르른 나무와 골짜기로 아름다운 느낌이었지만 순례해보니 짙은 고독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그런 침묵 안에서 주님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

정원이야기

중세의 꿈, 생갈 수도원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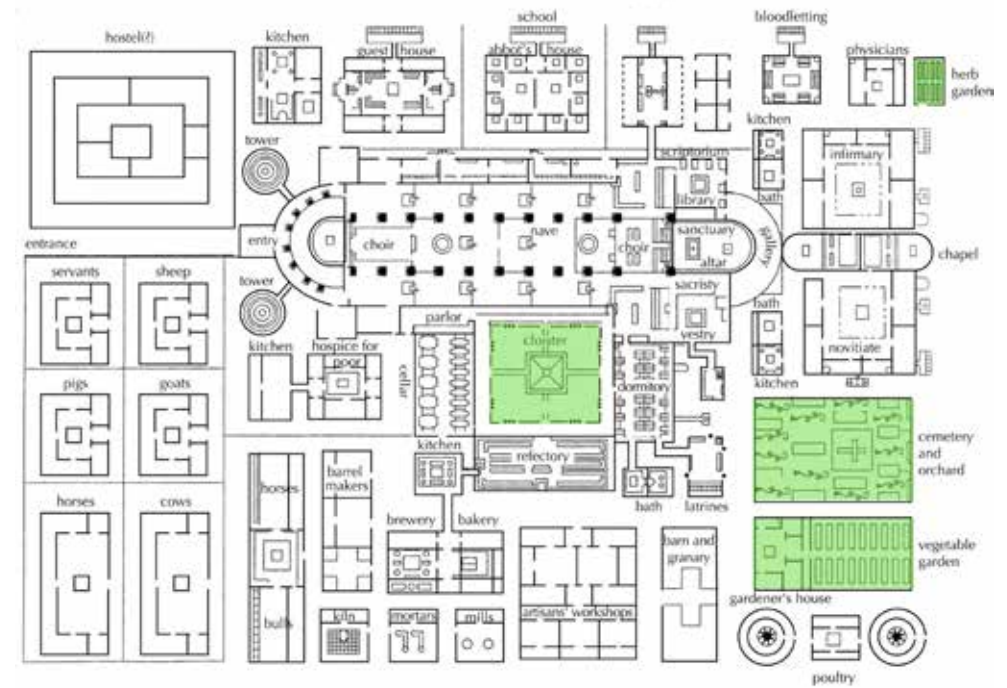
황주영 레지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에덴 정원에서 추방된 이후 인류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원을 보살피며 영성을 가꿀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는 중세의 수도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국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나라가 분열되더니, 급기야는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제껏 가꾸어온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시기에 수도원은 신앙과 지식, 그리고 삶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안식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수도원은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카파도키아에 지어졌고, 이를 서방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곳이니만큼 규범이 있어야겠지요. 4세기에 이집트의 파코미우스 성인이 처음으로 함께 수도 생활을 하는 공주(共住) 수도원을 세우셨는데, 그때부터 수도원에는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종과 기도, 침묵, 검소한 복장 등 우리가 수도원하면 떠올리는 특징들이 이미 이 시기부터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동도 필수였습니다. 자급자족이 원칙인 만큼 전부는 아니더라도 각종 먹거리를 수도사들이 키워 먹는 것이지요. 서양 수도원의 기반이 된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에도 수도원에는 반드시 정원이 있어야 한다는 규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일하는’ 수도원의 정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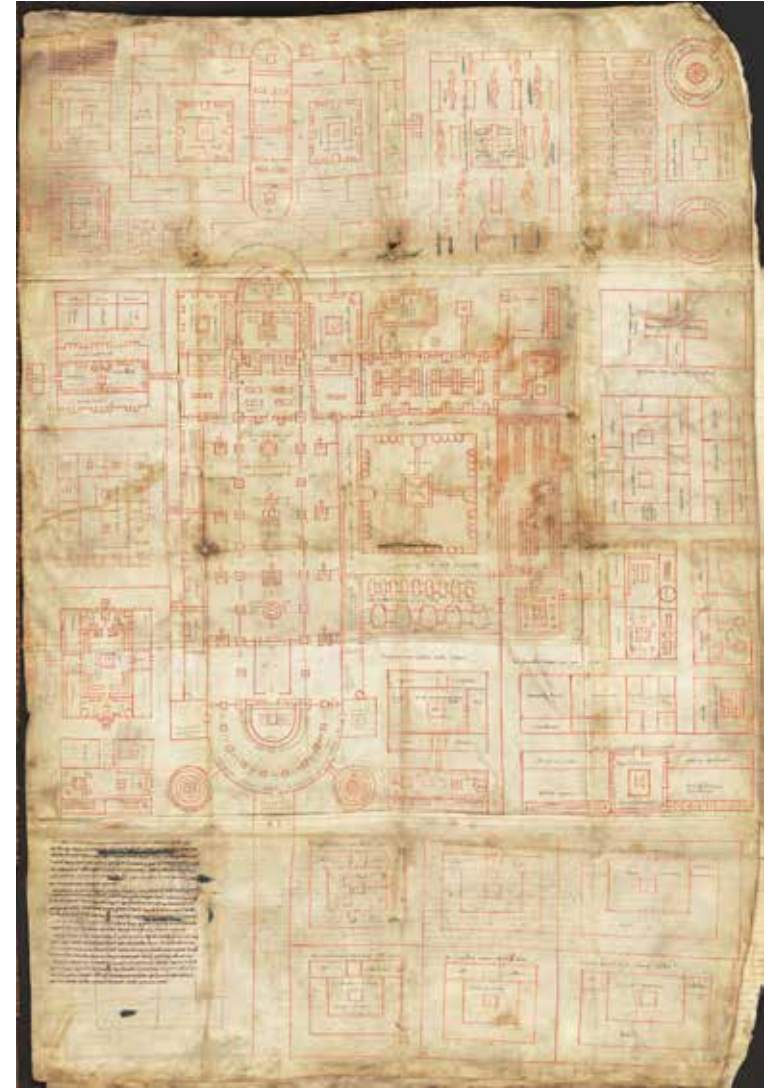
정원 부분을 표시한 <생갈 수도원 도면>

보통의 텃밭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지만, 9세기 초의 생갈 수도원의 도면을 통해 중세인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수도원 정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은 오늘날 스위스의 장크트갈렌(갈루스 성인을 프랑스어식으로 읽으면 생갈,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장크트갈렌입니다)에 위치한 생갈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중세 초기의 건축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면 수도원에는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성구실과 필사본실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순례객을 맞이하는 시설, 환자를 위한 의무실이 있고, 식당과 부엌, 양조장과 제빵소, 방앗간, 마구간과 외양간, 창고와 헛간, 공방, 그리고 묘지 등등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도시에 버금가는 구성이지요. 수도사와 방문객, 하인 등등을 합하면 수백 명은 이 수도원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많은 식재료가 필요했을 겁니다. 외부에서 조달하기도 했지만, 수도원에서도 텃밭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이 실용적인 정원들은 수도원의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데, 아마 근처에 부엌과 식당이 있을 겁니다. 우선 텃밭을 볼까요. 중세 시대에는 긴 직사각형의 화단에다 채소를 키웠는데, 생갈 수도원의 텃밭에도 비슷한 형태가 보입니다. 이 텃밭에서는 여러 가지 콩, 감자와 순무, 양파, 당근, 부추, 양배추 등을 키웠다고 합니다. 텃밭에서 바로 딴 식재료로 스프나 스튜를 끓이기도 하고, 또 겨울을 위해 갈무리해 헛간에 저장해 두기도 했을 겁니다. 그 옆에는 과수원이 있는데, 이곳은 수도원의 공동묘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수도원의 과수원에서는 미사를 위한 포도는 물론, 사과와 배, 여러 종류의 베리도 재배했고, 이를 가지고 맛있는 잼도 만들었습니다.

또 수도원에는 약초원도 있는데, 보통 의무실 근처에 위치합니다. 8세기부터 아랍어로 쓰인 문헌을 통해 고대와 이슬람 세계의 식물학적 지식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식물의 특징과 효능을 공부했고, 필요한 약초들을 정원에 재배했습니다. 박하, 회향, 캐러웨이, 세이지, 로즈마리처럼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허브들은 중세에는 귀중한 약재였고, 수도사들은 이 식물들을 수확하여 연고나 차, 가루약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식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유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레고르 멘델 또한 오스트리아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소속된 성직자였지요. 수도사들은 식물의 특징과 효능을 잘 알고 있었고, 수도원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치료 용도로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수도원에는 이런 일하는 정원뿐 아니라 기도하는 정원도 있었습니다. 예배당 옆 회랑에 마련된 클로이스터 정원은 수도사들이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방이 둘러싸인 이 중정에서 제단에 바치는 꽃을 키우기도 했지만, 대개는 별다른 장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곳이지요. 한적하고 조용한 이 클로이스터 정원에서 수도사들은 바쁜 일과 중



<생갈 수도원 도면>, 9세기 초, 생갈 수도원 도서관, 장크트갈렌

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도면에 그려진 생갈 수도원은 실제로는 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중세의 수도사들이 꿈꾼 정원의 모습을 함께 마음에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와 클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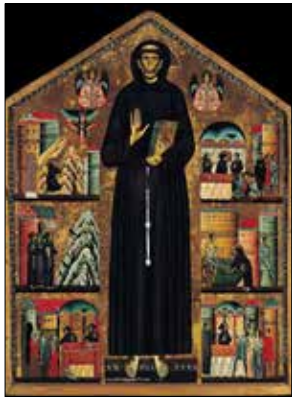
윤인복 소화테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태어난 두 성인 프란치스코와 클라라는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일 것이다. 이탈리아 성지 순례를 가면 빠지지 않고 가는 지역이 아시시이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이야기되

며, 클라라는 평생동안 그를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프란치스코’라고 부르기도 했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는 그리스도께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발적 가난을 공통의 복음적 실천으로 영적인 우정 관계를 이루었다.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



보나벤투라 베를링게, <성 프란체스코의 생애> 제단화, 1235년경, 페시아



작자 미상, <성 프란체스코와 그의 삶>, 13세기 전반, 피스토이아 시립박물관



작자 미상, <성 프란체스코의 생애>, 13세기 후반, 바르디 경당, 산타 크로체, 피렌체

‘작은 형제’ 성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San Francesco d'Assisi, 1182-1226)는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작은 도시인 아시시에서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유층 자제로 태어나 성장한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관심은 많았으나, 부유한 상인이나 기사가 되려는 야망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205년에 볼리아 원정대에 입대를 위해 가던 길에 결정적인 환시를 체험하고 아시시로 돌아갔다. 이때 그는

기사의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로마에서 순례하던 중,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구걸하는 걸인들을 보고 일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고, 성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환시를 체험한 후,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인식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철저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그리스도를 따름’의 여정 안에서 충실히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을 살아갔다. 그의 삶에 감동하여 함께 생

활하고자 하는 동료들이 잇따랐고, 동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실행해야 할 간단한 ‘생활양식(Forma Vitae)’을 썼다. 그리고 1209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작은 형제(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신분을 의미)’로 그들의 생활양식을 인준했다. 이때부터 수도회 형제들은 여러 지방과 유럽의 다른 나라와 심지어는 무슬림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설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는 이콘이나 프레스코로 제작되어 성당을 방문하는 많은 순례자에게 프란치스코에 대한 신심을 이끌어내고 그가 그리스도의 후계자라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최초의 성 프란체스코 제단화는 보나벤투라 베를링게리(Bonaventura Berlinghieri, 1210년경-1287)가 1235년에 그린 <성 프란체스코의 생애>이고, 13세기 전반에 그려진 피스토이아(Pistoia) 시립박물관의 <성 프란체스코와 그의 삶>이 있다. 또한, 13세기 후반에 제작되어 현재 피렌체 산타 크로체 성당에 내 바르디 경당의 <성 프란체스코의 생애> 제단화가 있다. 바르디 경당의 이콘 제단화 중앙에는 프란치스코가 오상(五傷)을 입은 채로 왼손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을 쥐고 있고, 오른손 손가락은 축복을 주는 모습이다. 양 측면에는 그의

생애에서 유래되는 사건들과 그의 죽음 후에 행한 중요한 일화들이 그려있다. 사실상 이것들은 모두 전기를 다룬 제단화로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상 필요한 날에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오토(Giotto di Bondone, 1266/76~1337)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상부 성당에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1296-1304)를 성당 내의 신랑 벽 전체에 프레스코화 제작하였다. 따라서 언제나 성당을 찾는 순례객들이 성인의 삶을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지오토가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상부 성당에 그린 것은 총 28장면으로, 사각형 틀 안에 같은 크기와 같은 높이로 보나벤투라(St. Bonaventure, 1217-74)가 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 전기』에 기록한 것 중, 주요한 28개의 사건을 선택하여 시간 순서대로 묘사했다. 마치 순례자가 보나벤투라의 전기를 읽는 것처럼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프레스코화를 통해 성인의 생애를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성인에 대한 수도회의 교육적 의도가 담겨 있다.

성 프란치스코가 새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을 그대로 따르려는 성인의 모습을 화가의 사실적 묘사로 나



지오토, <새들에게 설교함>, 1239-1253, 프레스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아시시

타낸다. 이것은 프란치스코의 일화들 가운데 피조물들과 나눈 형제적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그가 피조물들과 교감하는 신비적 사건인 새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은 피조물에 대한 그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준다. 프란치스코는 약간 허리를 굽히고 새들에게 설교할 뿐 아니라 오른손을 들어 축복까지 하고 있다. 그는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시 축복하고 있다. 그의 전기를 쓴 첼라노가 “프란치스코는 창작가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피조물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는 그것을 창조주와 관련시켰다. 그는 아름다운 사물들 안에서 아름다움 자체를 보았다. 모든 사물

들이 그에게는 선이었다. 그(사물)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그에게 외쳤다”라고 기술한 것처럼, 프란치스코에게 이 세상은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하느님의 선과 미를 보여주는 표상이었던 것이다. 화가는 프란치스코에게 날아와 모여들고 있는 새들을 통해 그를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난한 부인회’의 성녀 클라라

“빛”이란 뜻을 가진 성녀 클라라(St. Clare, 1194-1253년)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귀족가문에서 태어났다. 성녀는 1212년 성지주일

에 성 프란치스코의 설교와 그의 철저한 금욕과 극기의 생활에 감명을 받고, 그의 모범을 따라 모든 세속적인 재산을 버리고 수도 생활을 결심했다. 클라라는 프란치스코를 영적 아버지로, 그의 작은 싹으로 생각하며 항상 그의 높은 덕을 존경했다. 여자 수도원을 세우지 않았던 프란치스코는 바스티아 근방의 베네딕토 수도원에 클라라를 머물게 하였다. 이후 그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프란치스코가 마련해준 성 다미아노 성당을 본거지로 공동체가 마련되었고, ‘가난한 부인회’가 탄생하였다.

클라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수도원장이 되었고, 모든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아래 수녀들에게 대해서는 자비로운 어머니같이 인자했다. 그래서 그녀의 덕을 본받고 그 지도를 바라며 각지에서 모여드는 소녀들이 증가했다. 일체의 물건이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애공에 의존하며 살았던 수도회에 클라라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극빈한 생활에 동참했다. 그녀는 회칙에 의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금지되어 있었고, 당시 다른 어느 수도회보다 엄격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던 공동체를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이끌어갔다. 그녀는 가난한 생활양식과 관상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내적 충

만함과 거룩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실현했다.

클라라는 생전에 기도와 강복으로 중환자를 기적적으로 완쾌시키거나, 빵 한 개로 많은 수녀를 배불리 먹이는 기적 등을 보여줬다. 특히 1240년 독일의 황제 프리데리코 2세와 동맹한 사라센 군대가 아시시에 침입했을 때, 그녀는 성당에 들어가 제대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동정녀들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하오니 당신이 직접 그 전능하신 힘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어 적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며 성광을 모시고 천천히 사라센 군인들 앞으로 향했다. 그러자 성광에서 기이한 빛이 발산하여 적군들은 그 빛을 두려워하며 도망쳤다. 이 때문에 그녀의 주요 상징물 가운데 성광이 있고, 등불이나 초롱불 등이 그녀를 그린 작품에 묘사되곤 한다.

그녀의 전기를 보면, 1252년 성탄 밤에 그녀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침상을 떠나지 않고도 2Km나 떨어진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성탄 전야 미사를 환영으로 보며 참석할 수 있었다. 또한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수녀원을 떠나지 않고 장례식 장면을 환영으로 보았다. 이



조세파 데 오비도스, <아기예수를 경배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 1647년, 호제 리코 컬렉션, 리스본

러한 이유로 클라라는 텔레비전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조세파 데 오비도스(Josefa de Óbidos, 1630-1684)의 작품인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성녀 클라라와 성 프란치스코>에서 클라라 옆에 붉은 색으로 장식된 성광이 보인다.

클라라는 작은 동굴 속에 마련된 구유 위, 아기 예수께 양팔을 벌려서 기도하는 자세로 아기 예수가 오심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있다. 화가는 복음적 삶을 관상생활로써 실행하도록 비추어준 그녀의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인 프란치스코를 함께 그렸다. 프란치스코는 오상의 성흔이 새겨진 손을 가슴에 얹고 경건

하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다. 화가는 두 성인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소를 프란치스코가 은둔생활을 했던 그레치오를 배경으로 했다. 성탄절에 말구유를 만드는 풍속이 이곳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가 그레치오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중 성탄 시기에 그곳 성당에 베들레헴의 외양간을 본뜬 마구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저 놀라운 산 위에서처럼, 그분 안에서 본 그분의 모범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요를 멈추고 일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보나벤투라의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6

직장사목팀 30주년 감사미사&송년미사

- 일시 : 12월 14일(목), 20:00
- 장소 : 명동대성당
- 주례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직장사목팀 30주년 기념 AESTUS 성가단 연주회

- 일시 : 12월 15일(금), 20:00
- 장소 : 명동대성당



BYE



그동안 직장사목팀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가톨릭직장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간지는 올해 10월을 마지막으로 발행되며, 2024년부터는 계간지로 「가톨릭직장인」이 발행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직장사목팀의 소식들은 sns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거둬나겠습니다.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기꺼이 따스한 한 끼를 드릴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
선함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 해주세요.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 전화 02-774-3488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mdbj.or.kr)





Gabriel

In the Abrahamic religions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Gabriel (/ˈɡɛzbriəl/ GAY–bree–əl) is an archangel with the power to announce God's will to humans. He is mentioned in the Hebrew Bible, the New Testament, and the Quran. Many Christian traditions – including Catholicism, Eastern Orthodoxy, Lutheranism, and Anglicanism – revere Gabriel as a saint.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